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유마상

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굵고 계신 것을 알고 쌀, 미역, 빵을 지고 남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만 그때 이미 스님은 많이 지치고 병환이 깊어 있었습니다.

1987년 천통사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제 2회 백화도량불자 정진대회때 천통사 주위 약수터에서 약수도 마시며 목욕도 하면서 마음의 때 다 씻고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천통사지 뒷산에는 동네 사람들이 커귀거리 연못이라고 부르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은 우리 농어인들과 인연이 있다 하시며 쓰러진 나무종자며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농어인들의 귀를 수습하듯이...

스님은 도시에서는 소리를 낼 수도 없다며 산에서는 목청껏 소리를 내어보라며 목탁에 맞춰 관세음보살 경문을 하는데 평소 애 성대를 쓰지않던 농어인들이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리가 없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죄만 짓는 정상인보다 차라리 너희들이 더 낫다 하시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찰밭을 오느 내리며 농어인들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한번이라도 불러 보려고 자기목에 손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또 내 목에 손을 대어보고 내 입모양을 쳐다보며 눈으로

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8년 어느 날 태산같이 밟었던 법성스님이 갑자기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첫머리 자식을 출몰이 놔두고 먼지간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의 심정이 저와 같았을까요. 빨리 돌아가셨고 그토록 열심히 수행을 만드셨는지 저희와 같이 만든 수행과 합쳐 모두 100여 불교수화만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수행 덕분에 어떤 불교 강의라도 모두 통역할 수 있고 농어인들도 잘 알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장애는 드물고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 형제의 모습일 수 있으며 나 자신 또는 내 자식, 손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행을 배우는 정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저도 저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사람을 찾고 싶어서 11년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화교실을 열었는데 천주교 신자인 한 여성이 와서 수화를 배워 현재 가톨릭 재단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우리농어인들을 잘 지도하고 계시고 기독교인도 수화를 배워 교회에서 농어인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저 혼자 뿐입니다. 수화는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기초수화를 배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 보내면 부모가 농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니 자녀나 부모나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부유한 가정에서는 휴양소 같은 곳으로 격리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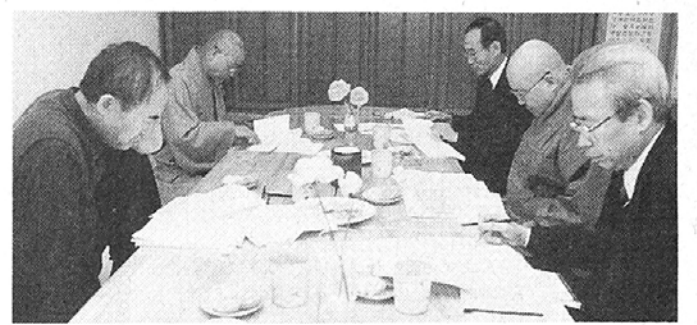
수화는청각언어장애인들의 모국어입니다. 수화를 배워 그들을 도와줍니다.

화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알 아듣지도 못하는 TV소리를 켜놓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TV방송국에서는 반드시 뉴스시간과 교육 교양프로그램 시간에 수화통역을 해서 그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팩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관광서 기차역 등의 대중 전화박스에 팩스를 설치하여 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심장병처럼 우리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의료보험으로 귀수술을 하여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

기로 키워주세요.

우리 농어인들이 전국 어디서 오더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서 능력껏 작업도 하고 정보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열도록 하고, 생산된 물건을 팔아 그 이익금을 그들에게 전부 돌려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농어인 자녀를 맡아서 언어지도를 해 주는 탁아방과 언제 누구든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육장이 붙어 있는 농어인들의 공간 그곳에서 소외받는 농어인들과 가족이 되어 생을 같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곳에 오는 농어인들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농어인 포교사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바쁘지만 책지 실정적인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가장 맞는 불교수화를 연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해서 농어인들이 부처님의 자랑스런 제자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인



현대불교신문이 공모한 신행수기에는 모두 105편이 응모, 이중 본심에 오른 20편의 작품들이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고 있다.

심사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하여 신행수기를 공모했던바 모두 105편의 신행수기가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서 예선을 통과한 20편이 본심에 넘어왔다. 우리 심사위원 전원은 20편의 예선통과 수기 가운데서 재가불자의 신행수기만을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해구스내의 (나의 작은 아이들) 과 변근회 행자의 (고통이 없는 곳으로) 두편을 심사대상에서 보류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면에 게재하는 예우를 신문사측에 부탁하였다.

노은택 불자의 (자식을 잃고 만난 불행)은 소재는 참으로 좋았으나 구성과 문장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나머지 수기 가운데는 지나치게 기복적인 면에 치우친 작품과 기복에만 매달리려는 모습들이 보여 아쉽기 그지 없었다.

이희명화 불자의 (저 너머에 행복이), 김영미불자의 (소중함 만남), 강주수 불자의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를 만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고 목영태 불자의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도 기복

'내생을...' 헌신적 포교 감동 기복 치우친 작품 많아 아쉬움

위원장 고은 (시인·본지 논설위원)

채인환 (동대 교수) 법신스님 (동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윤정광 (방송작가) 김광삼 (본지 발행인) 최정희 (본지 편집국장)

"부처님 개금·탑 쌓기도 좋지만 건강한 몸을 나눠 써 주세요"

소리를 듣고 따라 하려고 가던 발을 멈추고 자꾸만 소리를 내어보지만 '가여우아~르' 가느다란 절구같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하먼 구해달라는 소리는 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산위에서 '아~아' 하고 외치는 소리를 연습시켰지만 그 소리를 내는데 입을 열거나 흘리며 힘들어 하는지... 지난 삼중백화점 봉과 사고때 만약 우리 농어인이 지혜에 감히 있었다면 밖에서 보내는 신호를 듣지 못해 자기를 알릴 수도 없었을텐데.

스님과 같이 생활했던 우리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지난날 종교를 바꾸었을 때 천주님이, 하나님을 벗을때 곁을 내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생활하는 농어불자들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발우공양의 의미를 알고 참선도 해본 경험이 있는 농어불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농어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자가 된 어느 농어인이 저에게 함께 가서 통역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 갔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상인과 차별하여 봉급을 적게 준만큼 나쁜 것만 주어진다고 직접 용서를 빌자 그 주인이 감동하여 언제든지 다시 자기 회사로 나오라고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양봉업을 하는 농어불자는 진짜 꿀만을 만들어 "이 꿀을 잡으시는 모든 분들의 병이 완쾌되기를" 기도하고 또 꿀벌에게도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삼베 모두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믿고 정상인 이상으

운 뒤 그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으려면 대단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화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정상인들보다 순진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농어인 부모도 자식이 농어라는 것이 창피해 일가친척들이 모일 때는 돈 한푼 쥐서 늦게 놀다가 오라고 밖으로 내쫓고 형제도 귀찮아하며 안보려고 하고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말이 안통하니 서로 등져서 밖으로 돌면서 나쁜 일에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인과 똑같이 생겼으니 다른 장애인 보다 훨씬 편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농어인이 결혼할 때에도 주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수화로 통역하면 나이 알까와 통역인도 쓰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어불자들 4쌍이 법성스님의 주례로 제가 통역하여 농어불자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어인들은 정상인 아기를 낳아도 안고 풀이만 할뿐 말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 탁아소에 보내지도 못하고 밤에 아기가 울어도 듣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쫓겨날까봐 아기 손과 엄마 손을 묶어 아기가 깨어 울고 보채는 걸 알리고 애를 얼마나 쓰는지 우리 정상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농어인 자녀도 그들의 부모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려면 4~5세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도 수화를 배워야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 부모를 이해하는 것 역시



와 주어야만 합니다.

저도 처음엔 수화를 배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는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들이 필요한 곳에 제가 있어주는 것이 제가 할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서 법원에도 가야 되고 형제끼리 싸우면 그집에 가서 수화통역해야 되고 병원 학교... 장애인의 날에 KBS, MBC에서 가끔 수화통역도 했습니까하는 저의 손을 기다리는 곳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7월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농어인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부산 남부운전 면허시험장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농어인에게 강의하는 통역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농어인들은 많이 배웠던 적도 배웠던 완벽한 문장 구성을 잘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운전면허필기시험에서 합격률이 10%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수화로 문제지를 읽어주어야만 운전면허도 쉽게 취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불교를 만난 기쁨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코저 감사의 마음 하나로 출발한 일이 지금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엄청난 용

여러분들도 건강한 몸을 나눠 써 주세요.

그들의 빛이 되어 주세요. 절을 짓고 탑을 쌓고 부처님 몸에 금을 입히는 일도 우리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케 하여 그들이 맑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함은 물론 다시 그들이 그들의 주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불당기는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백화도량 농어불자 60여명중 30여명은 결혼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30여명의 농어불자들도 성불사에서 모인 법회장소를 교통중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으로 지난 11월 28일 옮겨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정기 법회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뛰는 능력을 두루 갖춘 불자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그들에게 조금만 나눠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행수기공모 당선작은 61호부터 모두 연재, 지상발표합니다.

그간 많이도 울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나만 쳐다보는 농어인 불자들에게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불쌍했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와 울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상을 불교수화 만드시다가 먼저 가신 법성스님께 바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마



당선소감

"불교수화 만들어 불법 전하고파"

와서 겁없이 이 일에 뛰어 들었습니다. 제가 스님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화도량 불자 모두는 영터러라는 소리도 들었고, 저희들이 서울에 살지 않고 부산에 산다고 여태껏 써온 불교수화 들을 사투리 수화라는 소리도 들었습니

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농어인 세계에 발을 딛고 보니 그들을 위하는 일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정상인들에게 알리는 일과, 진리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뜻에 맞는 불교수화를 만들어 불법을 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뜻있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이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땀은 곳마다 부처님 땅 도리에 하소서

한 마음 선원

■ 본원

주 지 : 혜원 스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금왕지원

지원장 스님 : 무애 스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산 5-2

■ 제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효 스님
제주 제주시 영평하동 1500

■ 부산지원

지원장 스님 : 혜도 스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1-1

■ 광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월 스님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 아산지원

지원장 스님 : 청일 스님
충남 아산시 실곡동 5동 52-6

■ 울산지원

지원장 스님 : 혜안 스님
경북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신도회장 : 명 을 식
☎ 0343-72-3100

신도회장 : 정 용 재
☎ 0446-877-0462

신도회장 : 문 경 행
☎ 064-21-4662

신도회장 : 남 이하경 예 박성빈
☎ 051-403-7077

신도회장 : 김 희 남
☎ 062-375-9986

신도회장 : 이 우 진
☎ 0418-44-1464

신도회장 : 황 경 환
☎ 0522-44-0884

■ 대구지원

지원장 스님 : 혜계 스님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2 대평빌딩 7층

■ 마산지원

지원장 스님 : 혜진 스님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3층

■ 진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근 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 대전지원

지원장 스님 : 혜능 스님
대전시 동구 추동 440-9

■ 포항지원

지원장 스님 : 혜문 스님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 청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천 스님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 강릉지원

지원장 스님 : 혜인 스님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신도회장 : 김 우 룡
☎ 053-426-2779

신도회장 : 양 호 성
☎ 0551-42-6638

신도회장 : 이 병 용
☎ 0531-746-8163

신도회장 : 윤 여 형
☎ 042-274-0891

신도회장 : 현 수 훈
☎ 0562-75-3163

신도회장 : 남 한정교 예 박상애
☎ 0431-273-6946

신도회장 : 권 오 윤
☎ 0391-651-3003